

또래관계 경험 및 가족지지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Children's Peer Experiences, Familial Suppor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서울법원어린이집
원 장 정 윤 주

Seoul Court Daycare Center
Director : Yun-Joo Chy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action between children's peer experiences and familial support in relation to their psychosocial adjustment(self-esteem and loneliness). Peer experiences were examined in term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peer acceptance and the reciprocity of best friendship. The subjects were 275 4th or 5th graders residing in Seoul. It was found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children's perceptions of peer acceptance and familial support, and that between the reciprocity of best friendship and familial support were both significant predictors of children's loneliness whereas only the former was a significant predictor of children's self-esteem.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children's experiences from one typ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should be examined in conjunction with their experiences in other types of relationships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psychosocial domains of child development.

주제어(Key Words): 또래 관계 경험(peer experiences), 가족 지지(familial support), 심리사회적 적응 (psychosocial adjustment)

I. 서론

아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유능하며 건강하게 발달하려면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경험이 필수적이다. 아동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신, 타인,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가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에 대해 학습하여 원만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된다. 사회적 관계는 또한 아동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건강한 심리 사회적 적응과 발달을 도모하는 기능도 하므로 아동 발달의 다양한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아동의 사회적 관계는 가족 관계에서 시작되어 아동의 연령 증가와 함께 점차 다른 대상과의 관계로 확대되어 간다. 학령기는 아동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기로서 가족 관계와 더불어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증가한다. 또래 관계와 가족 관계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아동이 가족 구성원이나 또래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이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이 심리사회적 적응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김명숙, 1995; 강민주, 전경숙, 1995; 한미현, 1996; Barrera & Li, 1996; Berndt & Keefe, 1995; Dubow & Tisak, 1989; van Aken & Asendorpf, 1997).

그런데, 아동이 일상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족과 또래는 각각 독립된 체계로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한 체계에서의 경험이 다른 체계에서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등 체계 간에도 관계가 있으므로 아동의 사회성에 관한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려면 두 체계의 관련성 및 상호작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의 사회적 관계 체계 간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은 인간발달의 생태학적 이론(Bronfenbrenner, 1979)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생태학적 이론에 따르면, 아동 발달은 아동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다중의 환경 체계와 체계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아동의 환경과 아동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환경 체계 간 상호의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관계와 적응에 관해 고찰하려면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하위 체계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어느 사회적 관계 체계가 아동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체계와 아동에게 중요한 다른 관계 체계와의 상호의존성을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Hartup, 1979; Lewis & Feiring, 1989). 예를 들면, 가족이나 또래 관계 중 어느 한 체계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다른 체계가 아동에 대한 지지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어느 한 체계의 기능이 부적절할 때 다른 체계의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Gauze, Bukowski, Aquan-Assee, & Sippola, 1996). 가족 관계 및 또래 관계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근의 연구도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 관계와 또래 관계가 각각 독립된 체계로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두 체계 간에 관련성이 존재하며 이 관련성 역시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Criss, Pettit, Bates, Dodge, & Lapp, 2002; Franco & Levitt, 1998; Gauze et al., 1996; Schwartz, Dodge, Pettit, Bates, & The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2000).

아동의 가족 관계와 또래 관계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방식은 연속성 모델과 상보성 모델로 대별된다(Cooper & Cooper, 1992). 연속성 모델은 아동이 가족과 형성한 관계 특성이 또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관점으로서 애착 이론과 일관된다. 즉,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와의 사회적 관계 경험을 통해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표상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데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Andersen, Glassman, & Gold, 1998) 아동의 가족 관계 특성은 또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델은 아동이 영아기에 주된 양육자와 맺게된 관계의 특성이 이후의 다른 관계에 대한 기

대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므로 같은 시점에서 아동에게 중요한 사회적 관계 체계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관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한편, 상보성 모델은 아동의 사회적 관계 중 어느 한 체계의 기능이 부적절할 때 다른 사회적 관계 체계를 통해 심리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를 얻어 이를 보완한다는 관점이다. 아동의 가족 관계 체계가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은 부적절한 자녀 양육 방식, 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불화 및 이혼, 가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모의 자녀 방치, 학대 등을 들 수 있으며, 또래 관계에서는 또래들에게 수용되지 못하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좋아하는 또래와 친구가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적응의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어서 기능이 부적절한 사회 관계 체계 이외의 다른 관계 체계로부터 충분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아동은 적응 상 문제를 적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 상보성 모델의 관점이다. 즉, 어느 한 사회적 관계 체계의 문제를 다른 사회적 관계 체계가 보완하여 아동의 적응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완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의 경제적 문제, 부모의 불화 및 가혹한 훈육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Criss et al., 2002)에서는 이러한 가족 문제를 경험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외현화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나 이들 중에서 또래에게 수용되는 정도가 높거나 친구가 있는 경우는 가족 문제 경험이 외현화 문제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또래 집단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학령기 아동의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Patterson, Cohn, & Kao, 1989)에서는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아동 중 어머니가 애정적인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관계가 또래 거부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는 상보성 모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가족 관계와 또래 관계가 아동의 적응에 있어서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예는 이혼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

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과 재혼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아동이 만족스런 친구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 심리적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 불안정성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etherington, 1989; Wallerstein, 1983).

아동의 가족 관계와 또래 관계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상보성 모델 관점은 Furman과 Buhrmester (1985)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타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아동이 지각하는 갈등, 권력, 심리적 지지를 비교하였는데 학령기 아동의 가족 관계와 또래 관계는 갈등과 권력 경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가족 구성원이나 또래는 모두 애착 대상으로서 애정과 친밀감을 제공하며 심리적 지지의 원천이 됨으로써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발달에 기여한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심리적 지지는 어느 한 관계에서 결핍될 경우 다른 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으며 (Furman & Buhrmester, 1985), 아동이 어느 대상과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도는 다른 대상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Gauze et al., 1996)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론 및 선행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관계 경험과 가족 관계 경험 간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즉, 또래 관계 경험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가족이라는 다른 사회적 관계 체계의 기능에 따라 다른지, 아동이 가족으로부터 지지받는 정도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또래 관계 경험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변수 중 또래 관계 경험은 일반적으로 또래 수용과 친구 관계의 두 하위 영역으로 구분된다(Bukowski & Hoza, 1989). 또래 수용은 아동이 또래 집단 구성원들에 의해 선호되는 정도로서 또래 아동들이 집단 수준에서 아동 개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이며, 친구관계는 아동이 또래의 다른 아동과 형성하는 자발적이며 개인적인

관계로서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한다. 아동의 또래 수용과 친구 관계 경험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또래 수용을 아동이 지각한 또래 수용으로, 친구 관계는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고찰하였다. 또래 수용은 또래 아동의 보고에 의해서도 측정할 수 있지만 아동이 스스로 또래 집단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아동의 적응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보일 것으로 생각되어 아동이 지각한 또래 수용을 고찰한다. 그리고, 아동의 친구 관계 경험은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아동의 발달 특성 상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론(Sullivan, 1953)에 따라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지 여부를 친구 관계 경험 변수로 선정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관계는 관계 범위가 넓고 관계 대상이 다양한 성인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대체로 가족, 또래, 교사로 한정된다(한미현, 1996; DeRosier & Kupersmidt, 1991; Furman & Buhrmester, 1985). 본 연구는 이들 중 또래 관계와 가족 관계 경험 간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어떻게 관계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교사와의 관계도 아동에게 주요 사회적 관계이지만 가족 관계나 또래 관계와는 성격이 다소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 관계와 또래 관계는 아동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집단 수준에서 경험하는 교사와의 관계와는 구분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계 경험의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큰 가족 관계와 또래 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변수 중 자아존중감은 아동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전반적인 평가인데 의미있는 타자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한다고 느끼는지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Harter, 1982; Rosenberg, 1965). 즉, 자아존중감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었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동의 사회적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리사회적

적응 변수이다. 한편, 외로움은 아동이 사회적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적응적 정서로서 사회적 관계와 관련되는 적응 지표로서 중요(도현심, 1996; 최보가, 임지영, 1999; Asher & Wheeler, 1985; Crick & Ladd, 1993)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상에서 언급한 아동의 사회적 관계 경험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이론과 연구 결과들을 요약해보면, 사회적 관계 중 어떤 영역에서든 부적절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적응 상의 어려움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며, 다른 영역에서의 사회적 관계 경험이 이러한 개인차가 있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 체계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사회적 관계 체계의 기능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또래 관계 경험과 가족 관계 경험의 상호작용에 의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 지각한 또래수용과 가족지지 간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2. 아동이 지각한 또래수용과 가족지지 간 상호작용은 아동의 외로움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3. 아동의 가장 친한 학급 친구의 상호성 여부와 가족지지 간 상호작용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4. 아동의 가장 친한 학급 친구의 상호성 여부와 가족지지 간 상호작용은 아동의 외로움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이 연구는 서울시내 소재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275명(4학년 137명, 5학년 138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 아동의 학년별, 성별 인원은 <표 1>에 제시된

<표 1> 연구 대상 아동의 학년 및 성별 분포

학년	성별	남(%)	여(%)	계(%)
4		72(26.2)	65(23.6)	137(49.8)
5		68(24.7)	70(25.5)	138(50.2)
계		140(50.9)	135(49.1)	275(100)

<표 2>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 성별 인원 분포

상호성	성별	남(%)	여(%)	계
상호적		59(21.9)	77(28.6)	136(50.6)
비상호적		79(29.4)	54(20.1)	133(49.4)
계		138(51.3)	131(48.7)	269(100)

바와 같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5학년 시기에 아동의 또래 관계가 확립되며 단짝 친구가 아동 발달에 특히 중요하다는 이론(Sullivan, 1953)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2.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아동 자신이 또래에게 선호된다고 느끼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또래수용 척도,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을 적도록 한 질문, 가족지지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외로움 척도였다.

1) 아동이 지각한 또래수용

아동이 지각한 또래수용은 Seidman, Chesir-Teran, Friedman, Yoshikawa, Allen, Roberts, & Aber (1999)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3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다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한다.', '나는 친구가 많다.', '나는 다른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낸다.'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조금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8이었다.

2)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어떤 아동이 같은 학급에 있는 한 아동을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로 지명했을 때 지명된 아동이 지명한 아동을 역시 가장 친한 친구라고 보고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급에서 자신과 가장 친하다고 생

각하는 동성 친구 1명의 이름을 적도록 하였다. 지명된 아동이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로 지명한 아동을 상호적으로 가장 친한 친구로 지명한 경우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 것으로 판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아동이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지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3) 가족 지지

가족 지지는 한미현(1996)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지각 척도 중 가족 지지를 측정하는 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조금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며,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 (Self-esteem scale)를 심승원(2001)이 번안한 것을 참고하여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자신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조금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를 이루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3이었다.

5) 외로움

외로움은 Asher와 Wheeler(1985)가 개발한 외로움 및 사회 불만족 척도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Questionnaire)를 정영인(198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4문항 중 외로움을 측정하

는 하위 척도 13문항만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조금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리커트식 척도로 되어 있으며,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03년 12월 22일부터 27일 사이에 질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질문지는 조사 대상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8학년 교실에서 연구 목적과 질문지 응답 방법을 숙지한 담임교사의 도움으로 배부되고 회수되었다. 회수된 질문지 중 무응답 문항이 많은 것을 제외하고 269부에서 얻은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또래수용, 가족지지, 자아존중감, 외로움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고, 아동이 지각한 또래수용 및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과 가족지지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외로움 정도를 고찰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연구 문제에 관한 자료 분석에 앞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들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해 보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3〉은 아동이 지각한 또래수용, 가족지지, 자아존중감, 외로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 변수들의 평균은 성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1. 아동이 지각한 또래 수용 및 가족 지지에 따른 자아존중감

아동이 지각한 또래 수용과 가족지지에 따라 아

〈표 3〉 또래수용, 가족지지, 외로움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기술 통계치

변수	성별(n)	평균	표준편차
또래수용	남(138)	3.50	1.02
	여(135)	3.53	.91
가족지지	남(137)	4.02	.92
	여(133)	4.04	.85
외로움	남(138)	1.99	.72
	여(135)	1.90	.60
자아존중감	남(138)	3.35	.65
	여(135)	3.38	.59

동의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이 지각한 또래수용, 가족지지, 아동이 지각한 또래 수용과 가족 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독립 변수로 하여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2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독립 변수와 상호작용 항 간의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iken과 West (1991)가 제시한 지침에 따라 각 아동의 또래수용과 가족지지 점수에서 각각 집단의 평균치를 감하는 중심화(centering) 과정을 거친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또래 수용과 가족지지를 독립 변수로 하여 자아존중감을 예측하였다. 그 결과, 아동이 지각한 또래 수용과 가족 지지는 모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즉, 아동 자신이 또래에게 수용된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으로부터 지지 받는 정도가 높다고 느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2단계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또래 수용과 가족지지 간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자아존중감을 예측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가 .37에서 .39로 .02만큼 유의하게 ($p < .01$) 증가하였다. 따라서, 또래수용, 가족지지, 또래수용과 가족지지 간의 상호작용이 모두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독립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수용이 자아존중

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가족지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가족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정도는 또래 수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또래수용, 가족지지, 또래수용과 가족지지 간 상호작용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SE _B	β	t
1단계 ($R^2 = .37$)				
또래 수용	.28	.03	.44	8.26***
가족 지지	.20	.04	.28	5.25***
2단계 ($R^2 = .39$)				
또래 수용	.30	.03	.47	8.71***
가족 지지	.22	.04	.31	5.78***
또래 수용 X 가족 지지	.07	.03	.14	2.71**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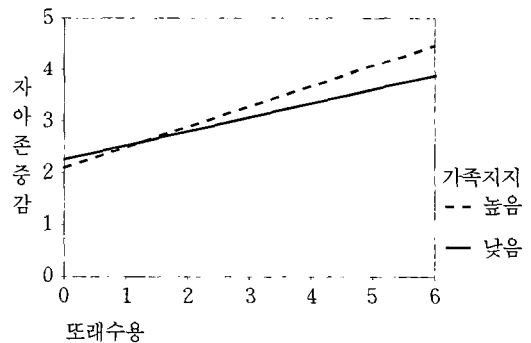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또래수용과 가족지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이 지각한 또래수용과 가족지지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를 나타내는 선 그래프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가족지지를 낮게 지각한 집단과 높게 지각한 집단에 대해 또래수용 정도가 자아존중감에 영향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선 그래프를 각각 작성하였다. 가족지지를 낮게 지각한 집단과 높게 지각한 집단은 중앙값을 기준으로 구분(median split)하였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지지를 높게 지각한 집단이 낮게 지각한 집단보다 또래수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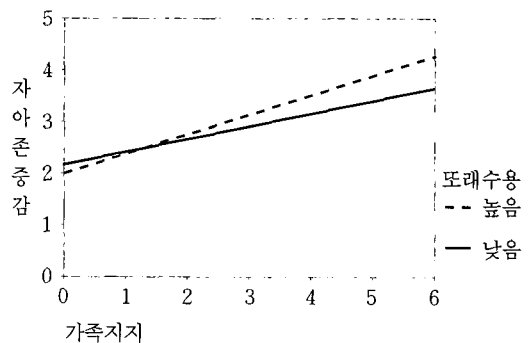
두 집단에서 또래수용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또래수용을 독립변수로 하여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회귀분석을 집단별로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또래수용의 표준회귀계수가 가족지지가 낮은 집단은 .49 ($p < .001$), 가족지지가 높은 집단은 .53 ($p < .001$)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게 지각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보다 또래수용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가 컸다.

다음으로는 또래수용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 대해 각각 가족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선 그래프를 작성하였다(그림 2). 또래수용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도 중앙값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림 2>는 또래수용을 높게 지각한 집단이 낮게 지각한 집단보다 가족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또래수용을 높게 지각한 집단과 낮게 지각한 집단에 대해 가족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가족지지의 표준회귀계수 β 가 또래수용이 낮은 집단은 .43 ($p < .001$), 또래수용이 높은 집단은 .47 ($p < .001$)로 나타났다. 즉, 또



<그림 1> 또래수용에 따른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비교)



<그림 2> 가족지지에 따른 자아존중감 (또래수용도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비교)

래수용을 높게 지각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게 지각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보다 가족지지에 의해 영향 받는 정도가 컸다.

2. 아동이 지각한 또래 수용 및 가족 지지에 따른 외로움

아동이 지각한 또래 수용과 가족지지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외로움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이 지각한 또래수용, 가족지지, 아동이 지각한 또래수용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 항을 독립변수로 하여 외로움을 예측하는 2단계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또래수용과 가족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외로움을 예측하였고, 2단계에서는 또래수용과 가족지지 간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 분석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또래수용과 가족지지가 모두 아동의 외로움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였다. 아동 자신이 또래에게 수용된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으로부터 지지 받는 정도가 높다고 느낄수록 외로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낮았다. 회귀분석 2단계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또래수용과 가족지지 간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였다. 그 결과, 외로움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전체적인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가 .62에서 .63으로 .01만큼 유의하게 ($p < .01$) 증가하여 또래수용, 가족지지, 또래수용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이 모두 외로움을 설명하는 유의한 독립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수용이 외로움을 설명하는 정도는 가족지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가족지지가 외로움을 설명하는 정도는 또래수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외로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또래수용과 가족지지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또래수용과 가족지지에 따른 아동의 외로움 경험 정도를 선 그래프로 나타내보고, 추가적인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가족지지를 낮게 지각한 집단과 높게 지각한 집단에 대해 각각 또래수용 정

<표 5>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또래 수용, 가족지지, 또래 수용과 가족지지 간 상호작용의 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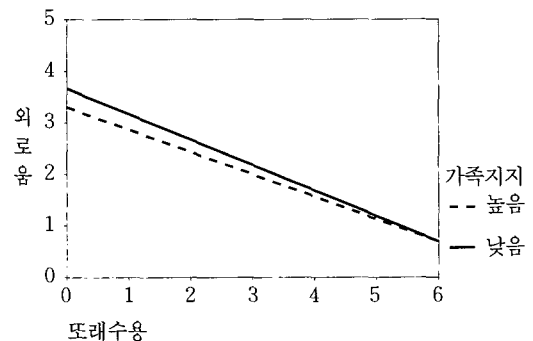
독립변수	B	SE _B	β	t
1단계 ($R^2 = .62$)				
또래 수용	-.47	.03	-.72	-16.95***
가족 지지	-.09	.03	-.13	-3.04**
2단계 ($R^2 = .63$)				
또래 수용	-.46	.03	-.70	-16.69***
가족 지지	-.06	.03	-.09	-2.02*
또래 수용 X 가족 지지	.06	.02	.12	2.89**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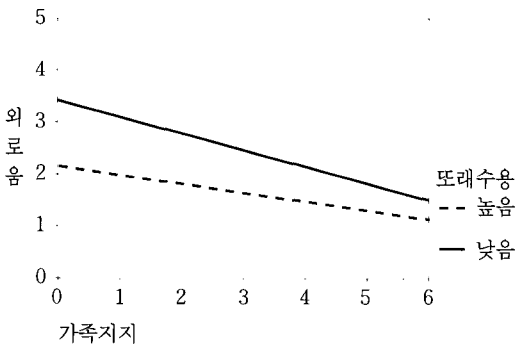
도가 외로움에 영향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선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지지를 낮게 지각한 집단이 높게 지각한 집단보다 또래수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가족지지를 높게 지각한 집단과 낮게 지각한 집단 각각에 대해 또래수용을 독립변수로 하여 외로움을 설명하는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지지를 높게 지각한 집단과 낮게 지각한 집단에서 또래수용이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서로 다르지 않았다.

둘째, 또래수용을 낮게 지각한 집단과 높게 지각한 집단에 대해 각각 가족지지가 외로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선 그래프를 작성



<그림 3> 또래수용에 따른 외로움 (가족지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비교)



〈그림 4〉 가족지지에 따른 외로움 (또래수용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비교)

하고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또래수용을 낮게 지각하고 있는 집단이 높게 지각하고 있는 집단보다 가족지지가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에서 각각 가족지지가 외로움에 영향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외로움을 설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회귀분석 결과, 가족지지의 표준 회귀계수 β 가 또래수용이 낮은 집단은 -0.44 ($p < .001$), 또래수용이 높은 집단은 -0.35 ($p < .001$)로 나타났다. 즉, 또래수용을 낮게 지각하는 아동의 외로움이 높게 지각하는 아동의 외로움보다 가족지지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3.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및 가족 지지에 따른 자아존중감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지 여부와 아동이 지각한 가족지지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 가족지지,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와 가족지지의 상호작용을 독립 변수로 하여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2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와 가족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였고, 2단계에서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과 가족지지 간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자아존중감을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이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 및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와 가족지지 간의 상호작용은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다.

〈표 6〉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 가족지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와 가족지지 간 상호작용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SE _B	β	t
1단계 ($R^2 = .21$)				
친구 상호성	.003	.07	.002	.04
가족 지지	.32	.04	.45	8.20***
2단계 ($R^2 = .21$)				
친구 상호성	.004	.07	.004	.07
가족 지지	.35	.06	.49	6.32***
친구 상호성 X 가족 지지	-.05	.08	-.05	-.60

*** $p < .001$

4.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및 가족지지에 따른 외로움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와 가족지지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 가족지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와 가족지지 간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하여 외로움을 예측하는 2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와 가족지지가 독립변수였고, 2단계에서는 여기에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와 가족지지 간 상호작용을 추가로 투입하여 외로움 정도를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와 2단계 분석에서 모든 독립변수가 유의하게 외로움을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1단계 분석 결과는 학급에서 서로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 아동은 그런 친구가 없는 아동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며,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도가 높을수록 외로움을 경험하는

〈표 7〉 아동의 외로움에 대한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 가족지지,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와 가족지지 간 상호작용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SE _B	β	t
1단계 ($R^2 = .24$)				
친구 상호성	-.26	.07	-.21	-3.92***
가족 지지	-.31	.04	-.43	-8.00***
2단계 ($R^2 = .26$)				
친구 상호성	-.27	.07	-.22	-4.02***
가족 지지	-.40	.05	-.55	-7.34***
친구 상호성 X 가족 지지	.18	.08	.17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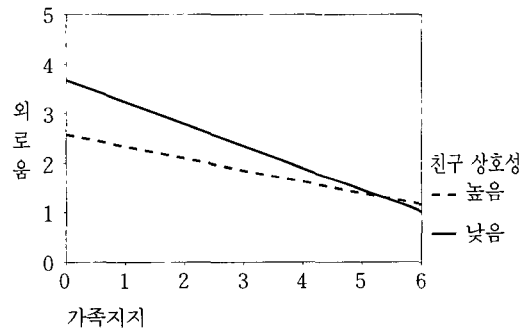
* $p < .05$ *** $p < .001$

정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와 가족지지 간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추가한 2단계 분석 결과, R^2 가 .24에서 .26으로 .02만큼 유의하게($p < .05$) 증가하였다. 즉,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 가족지지가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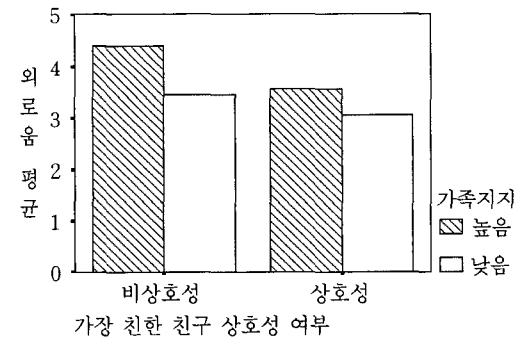
아동의 외로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와 가족지지가 상호작용 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 아동 집단과 그렇지 않은 아동 집단으로 구분하여 가족지지가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선 그래프를 작성하고 두 집단에 대해 각각 가족지지를 독립변수로 하여 외로움을 설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가족지지가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른지를 보여주는 선 그래프는 〈그림 5〉와 같다.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급에서 가장 친한 상호적 친구가 없는 아동 집단이 있는 아동 집단보다 가족지지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 아동 집단과 그렇지 않은 아동 집단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외로움을 설명하는 가족지지의 표준회귀계수 β 가 친구가 상호적인 아동 집단에서는 $-.38$ ($p <$

.001)이고, 친구가 상호적이지 않은 아동집단에서는 $-.51$ ($p < .001$)로 나타났다. 즉,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이지 않은 아동 집단이 상호적인 아동 집단 보다 가족지지 정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다음으로,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에 따른 아동의 외로움 경험이 가족 지지에 따라 다른지를 〈그림 6〉의 그래프로 알아보았다.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는 비연속 변수이므로 선 그래프가 아닌 막대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급에서 가장 친한 상호적 친구가 없는 아동 집단이 그러한 친구가 있는 아동 집단에 비해 외로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런데,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이지 않은 아동도



〈그림 5〉 가족지지에 따른 외로움 (친구가 상호적인 집단과 비상호적인 집단 비교)



〈그림 6〉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별 외로움 (가족지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비교)

가족으로부터 지지받는 정도가 높으면 외로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낮았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또래 관계 경험과 가족 관계 경험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였다. 또래 관계 경험은 아동이 지각한 또래수용과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로 고찰하였고, 가족 관계 경험은 아동이 지각한 가족지지로 고찰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또래수용과 가족지지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이 또래 아동들에게 선호된다고 스스로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으로부터 지지받는 정도가 높다고 느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아동이 지각한 또래수용과 가족지지의 상호작용도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즉, 아동이 지각한 또래수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지지에 따라 달랐으며, 가족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또래수용에 따라 달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이 또래로부터 선호된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는데, 이러한 관계는 가족으로부터 지지받는 정도가 높은 아동에게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는데, 이 관계는 또래수용을 높게 지각하는 아동의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르면, 또래 관계 체계와 가족 관계 체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상호의존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관계 체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다른 사회적 관계 체계가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아동들이 원만한 또래 관계를 맺고 있는 아동들에 비해 가족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East, 1991; Ladd &

LeSieur, 1995; Rigby, 1993)에 근거해 해석할 수 있다. 즉, 어느 사회적 관계 체계에서 부적절한 경험을 하는 아동은 다른 관계 체계에서도 긍정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낮으며, 또래 관계 체계와 가족 관계 체계 중 어느 한 영역에서 부적절한 경험을 하는 아동은 기본적인 자아존중감이 낮게 형성되며 다른 사회적 관계 체계에서의 긍정적 경험으로 이를 향상시키는 것도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아동이 어느 사회적 관계 체계에서 갖게 되는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면 다른 사회적 관계 체계들도 마찬가지로 원활히 기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또래 관계 경험 변수로서 어떤 아동에 의해 학급에서 가장 친한 친구로 지명된 아동이 자신을 지명한 아동을 가장 친한 친구로 지명하였는지를 통해 판정한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와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가족지만 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였으며,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나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와 가족지지 간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초등학교 4-5학년 연령의 아동에게 상호적인 단짝 친구 존재가 심리적 적응에 중요하다는 보고 및 또래 관계와 가족 관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박경리·김경연, 2001; Berndt, 1996; Berndt & Keefe, 1995; Vemberg, 1990)와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상호적으로 가장 친한 친구 관계의 특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서(Snyder, Dishion, & Patterson, 1986)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즉, 상호적으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지만 그 친구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그 친구와의 관계가 공동으로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활동에 의해 유지되는 경우라면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친한 친구와 학급의 다른 아동들을 괴롭히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학급의 다른 또

래들로부터 수용되는 정도가 낮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상호적 친구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 미치는 시기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학령기 아동의 친구 관계는 당장의 자아존중감 수준보다는 청년기 이후의 자아존중감 수준과 관계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Buhrmester, 1996)와 관련지어 보면,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 아동의 연령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아동이 지각한 또래수용과 가족지지에 따라서 아동의 외로움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와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와 가족지지에 따라서 아동의 외로움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서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가족 관계 경험과 또래 관계 경험의 상보성 모델에 부합된다. 즉, 아동이 또래로부터 수용되는 정도가 낮다고 지각할수록, 가족으로부터 지지받는 정도가 낮다고 지각할수록 외로움을 더 높은 정도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래수용과 가족지지 간의 상호작용도 외로움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아동이 또래수용을 낮게 지각하는 경우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지만 이러한 아동 중에서 가족지지가 높은 아동은 낮은 아동에 비해 외로움을 덜 느꼈다. 또한, 가족지지가 낮을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경험하지만 또래로부터 수용된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외로움을 덜 경험했다. 다시 말하면, 또래 관계의 긍정적인 경험에 의해 가족지지가 낮은 아동과 높은 아동 간의 외로움 경험 정도 차이가 감소하였으며,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에 의해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 간의 외로움 수준 차이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가족 관계나 또래 관계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Criss et al., 2002; Price, 1996; Schwartz et al., 2000)과 일치한다. 또한, 생활의 어느 한 영역에서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한 좌절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적응 상태를 보이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회복력(resilience)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는 제안(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Masten, Hubbard, Gest, Tellegen, Garnezy, & Ramirez, 1999)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학령기 아동의 또래 관계 경험 중 아동 자신이 지각한 또래수용 및 가장 친한 친구의 상호성 여부와 가족지지 간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지표인 자아존중감 및 외로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사회적 관계 경험의 영향을 고찰할 때 서로 다른 사회적 관계 체계들 간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의 사회적 관계 경험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적응 지표에 따라 다른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가족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또래수용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높은 집단에서 더 강했으며, 또래수용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가족지지가 낮은 집단에 비하여 높은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가족지지가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또래수용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 비하여 낮게 지각하는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긍정적인 또래관계 경험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정도는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증가하며, 가족지지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정도는 긍정적인 또래관계 경험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한편 가족지지가 외로움을 낮추는 정도는 긍정적인 또래관계 경험이 적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가족지지와 긍정적인 또래관계 경험 두 영역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상호의존적인 경향을 보이는 반면, 외로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는 상보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아동의 사회적 관계 경험 영역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적응지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서 보완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 체계 중 또래 관계 및 가족

관계만을 고찰하였는데 이외에 교사와의 관계도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관계로서 중요하므로 추후 연구에서 이들 세 유형의 사회적 관계 체계를 모두 고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결과 해석에서 또래 관계 경험과 가족지지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횡단적 자료이므로 자아존중감이나 외로움 경험에 따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지각이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가장 친한 친구 상호성 여부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변수이지만 친구 관계의 특성에 따라서 아동이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만족도나 특정 아동에게 있어서 친구 관계의 기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이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강민주, 전경숙(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능력지각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16(1), 197-210.

김명숙(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도현심(1996). 아동의 수줍음, 대인 적응성 및 또래 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33-45.

박경리, 김경연(2001). 아동의 영역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영향: 단짝친구 지지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22(4), 85-97.

심승원(2001).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영인(1988). 인기도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 및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보가, 임지영(1999). 또래 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Sage.

Andersen, S. M., Glassman, N. S., & Gold, D. (1998). Mental representations of the self, significant others, and nonsignificant others: Structure and processing of private and public asp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845-861.

Asher, S. R., & Wheeler, V. A. (1985).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of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4), 500-505.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 140-153.

Barrera, M., & Li, S. A. (1996). The relation of family support to adolescents' psychological distress and behavior problem. In G. R. Pierce, B. R., Sarason, & I. G. Sarason (Eds.). *Handbook of social support and the family*. Plenum Press: New York.

Berndt, T. J. (1996). Exploring the effects of friendship quality on social development.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pp. 346-36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rndt, T. J., & Keefe, K. (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 1312-1329.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by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uhrmester, D. (1996). Need fulfillment,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the developmental contexts of early adolescent friendship.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 childhood and adolescence*(pp. 158-18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kowski, W.,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 Cooper C. R., & Cooper, R. G., Jr. (1992). Links between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and peers: Models, evidence, and mechanisms. In R. D. Parks, &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ls of linkage* (pp. 135-15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rick, N. R., & Ladd, G. W. (1993).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peer experiences: Attributions, social anxiety, and social avoid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9*, 244-254.
- Criss, M. M., Pettit, G. S., Bates, J. E., Dodge, K. A., & Lapp, A. L. (2002). Family adversity, positive pe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risk and resilience. *Child Development, 73*, 1220-1237.
- DeRosier, M. E., & Kupersmidt, J. B. (1991). Costa Rican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656-662.
- Dubow, E. F., & Tisak, J. (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6), 1412-1423.
- East, P. L. (1991).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of withdrawn, aggressive, and sociable children: Child and parent perspectives. *Merrill-Palmer Quarterly, 37*, 425-444.
- Franco, N., & Levitt, M. J. (1998). The social ecology of middle childhood: family support, friendship quality, and self-esteem. *Family Relations, 47*, 315-321.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 Gauze, C., Bukowski, W. M., Aquan-Assee, J., & Sippola, L. K. (1996). Interactions between family environment and friendship and associations with self-perceived well-being during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7*, 2201-2216.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 788-799.
- Hartup, W. W. (1979). The social world of childhood. *American Psychologist, 34*, 944-950.
- Hetherington, E. M. (1989). Coping with family transitions: Winners, losers, and survivors (Presidential Address). *Child Development, 60*, 1-14.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7). Classroom peer acceptance, friendship, and victimization: Distinct relational systems that contribute uniquely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8*, 1181-1197.
- Ladd, G. W., & LeSieur, K. D. (1995). Parents and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4. Applied and practical parenting*(pp. 377-409). Mahwah, NJ: Erlbaum.
- Lewis, M. E., & Feiring, C. (1989). Early predictors of childhood friendship.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 in child development* (pp. 246-273). New York: Wiley.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Master, A. S., Hubbard, J. J., Gest, S. D., Tellefen, A., Garnezy, N., & Ramirez, M. (1999).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 143-169.
- Patterson, C. J., Cohn, D. A., & Kao, B. T. (1989). Maternal warmth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risks associated with peer reject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 21-38.
- Price, J. M. (1996). Friendship of maltreated children and adolescents: Contexts for expressing and modifying relationship history.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pp. 346-36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gby, K. (1993). School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families and parents as a function of peer relation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4, 501-51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Bates, J. E., & The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2000). Friendship as a moderating factor in the pathway between early harsh home environment and later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6, 646-662.
- Seidman, E., Chesir-Teran, D., Friedman, J. L., Yoshikawa, H., Allen, L., Roberts, A., & Aber, J. L. (1999). The risk and protective functions of perceived family and peer microsystems among urban adolescents in poverty.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 211-237.
- Snyder, J., Dishion, T. J., & Patterson, G. R. (1986).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associating with deviant peers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6, 29-43.
- Sullivan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van Aken, M. A. G., & Asendorpf, J. B. (1997). Support by parents, classmates, friends and siblings in preadolescents: Covariation and compensation across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4, 79-93.
- Vernberg, E. M. (1990).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experiences with peers during early adolescence: Reciprocal, incidental, or unidirecti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187-198.
- Wallerstein, J. S. (1983). Children of divorce: Stress and developmental tasks. In M. Garnezy & M. Rutter (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pp. 265-302). New York: McGraw-Hill.

(2004년 5월 31일 접수, 2004년 8월 18일 채택)